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AI 주도 투자가 미 경제 성장 견인하다
- Bloomberg: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금리 인하 반대 투표했다"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지난주 하락

[미국 금융]

- WSJ: 연준, 은행 감독 인력 30% 줄인다

[무역전쟁]

- Bloomberg: 트럼프, 미중 회담서 '희토류 성과' 자찬
- Bloomberg: 트럼프, 관세와 상관없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경제 추진한다

[로봇/인공지능]

- WSJ: 미 전역 도시 곳곳마다 로봇이 일한다
- WSJ: 빅테크 회사들 'AI 투자, 여전히 충분치 않다'

[주택]

- WSJ: 주택 구매, 점점 더 무산...불확실한 경제로
- CNBC: 미 모기지율, 오히려 0.2% 급등...연준 금리는 인하

[오일]

- WSJ: Exxon, 이익 급감...가격 약세로
- WSJ: Chevron도 이익 감소...유가 하락으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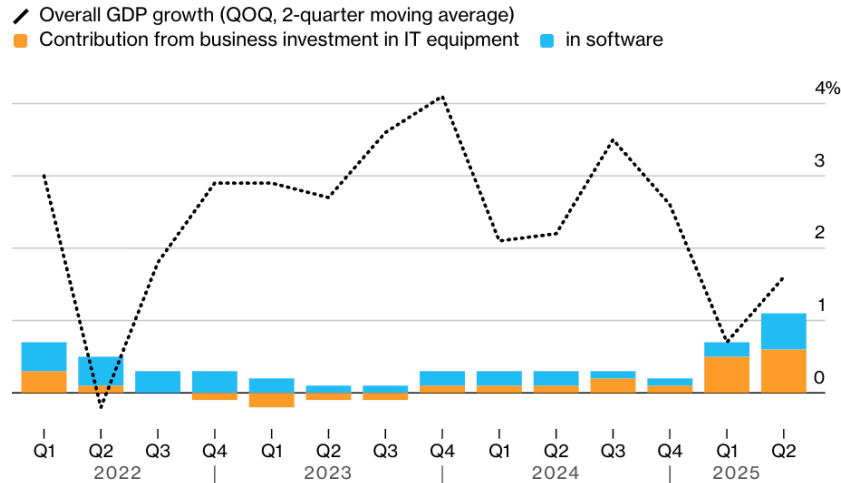
- YahooFinance: 월마트, 연말연시 앞두고 새로운 AI 쇼핑 도구 발표

[미국 경제]

Bloomberg: AI-Led Investments Are Driving US Economic Growth **AI 주도 투자가 미 경제 성장 견인한다**

- 미 경제 성장은 주로 AI 투자 덕분이다.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투자가 급등하고 있고 데이터센터가 건설업계에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 AI 투자와 그 파급효과가 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보처리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GDP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관련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률로 미 소비자들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 AI 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반기 성장의 1%가 AI 때문이며 그 기여도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Led Investment Became a Big Growth Driver This Year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ote: Numbers don't include imports of IT equipment, which subtract from growth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Schmid Cites Inflation Risks in Dissent Against Rate Cut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금리 인하 반대 투표했다”

-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인 Jeff Schmid는 이번주에 열렸던 연준 금리 정책 회의에서 인플레이에 대한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 그는 노동시장이 비교적 균형 잡히고 미국 경제가 계속 모멘텀을 보이지만 인플레이가 너무 높다는 것. 소비자 물가가 올해 9월까지 3% 상승했다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의 물가 목표치 2%가 의문시 된다면 낮은 금리 정책이 인플레이를 계속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 State Data Suggest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지난주 하락

- 지난주에 미 신규 실업 청구건수가 하락했다. 연방 셧다운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블룸버그가 각 주정부의 자료를 조사해 이뤄졌다.
- 10월 25일 끝나는 주의 경우 신규 청구건수는 21만8천건으로 그 전주의 23만1천 건보다 낮았다.
- 전체 청구건수는 1백95만건으로 약간 증가했다.
- 한편 연방노동국의 관련 자료는 지난 9월 25일 이래 나오지 않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Federal Reserve to Reduce Bank Supervision Staff by 30%

연준, 은행감독 인력 30% 줄인다

- 연준 최고 규제 책임자 Michelle Bowman 부의장은 내년 말까지 은행 감독 부서 직원을 30% 감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 이번 감축으로 연준 감독 및 규제 부서의 인원은 기존 500명에서 약 35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 또한, 감축 방식은 자연 감축, 은퇴, 직원의 자발적 퇴직 인센티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는 퇴직금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감축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연준을 강하게 비판해 온 시기에 나온 것이다.

YahooFinance 기사

[무역전쟁]**Bloomberg: Trump Touts Rare-Earth Win in Talks Showing Xi's Strong Hand****트럼프, 미중 회담서 '희토류 성과' 자찬**

-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과의 회담 이후에 중국의 희토류 접근에 대한 양측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 중국측은 핵심광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1년 유예하겠다는데 동의했으나 예전 통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 중국의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블랙리스트 확대 계획을 유보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Pushes for a US-Led Digital Economy That's Free of Tariffs**트럼프, 관세와 상관없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경제 추진한다**

- 미국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으로부터 미국의 상거래와 온라인 거래 업체에 디지털 서비스 세금이나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 트럼프 행정부는 서비스 무역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관세/추가 수수료가 없는 글로벌 인터넷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상거래는 지정학적인 분열 상황에서 점점 '전쟁터'가 되고 있다.
-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게 매 2년마다 연장되는 전자 송전물(소프트웨어, 영화 등)에 대한 무관세를 계속 유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WSJ: Cities Across the U.S. Are Putting Robots to Work
미 전역 도시 곳곳마다 로봇이 일한다**

- 캔자스 시티 소방국은 작년 3월에 로봇을 배치해 분당 2천5백갤론의 양을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방차 보다 많은 양이다.
- 캘리포니아 Irvine는 올해 8월에 5개의 로봇을 설치해 9천개의 커브길 경사로, 9백50마일 인도와 4백개의 정류장, 70마일의 포장된 산책로가 장애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사람 손을 빌릴 경우 4년 이상이 걸릴 일이 6개월만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 노스 캐롤라이나 Sanford는 6에이커 대지에 자동 잔디 깎기 로봇을 배치했는데 하루 23시간 가동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잔디 상태를 개선시키고 해당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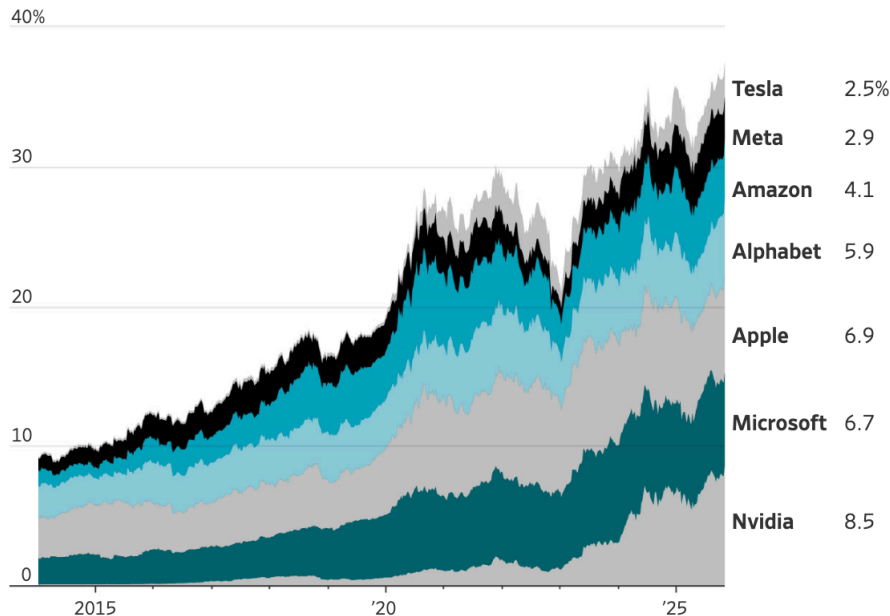
WSJ 기사

WSJ: Big Tech Is Spending More Than Ever on AI and It's Still Not Enough

빅테크 회사들 'AI 투자, 여전히 충분치 않다'

- 실리콘밸리의 대형 회사들은 올해 인공지능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것.
-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내년에 관련 지출을 늘릴 예정이다.
- 구글의 CFO는 “인공지능 투자로 자사의 매출이 수십억불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아마존과 구글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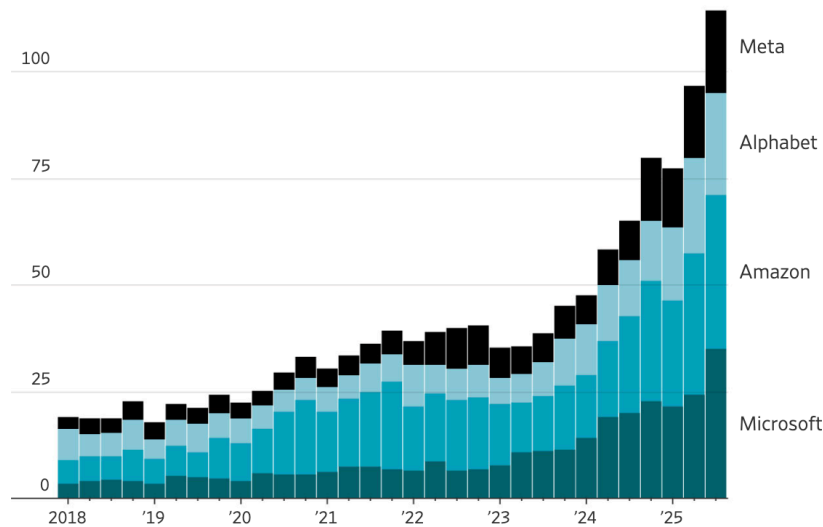
Market values as a share of the S&P 500's total value



Note: Weekly data. Tesla joined the S&P 500 in December 2020.
Source: FactSet

Capital expenditures, quarterly

\$125 billion



Note: Data are for calendar quarters and include finance leases.
Source: the companies

WSJ 기사

[주택]**WSJ: More Home Purchases Are Falling Through in an Uncertain Economy****주택 구매, 점점 더 무산...불확실한 경제로**

- 부동산 중개업체 Redfin에 따르면, 9월 주택 계약 취소율은 약 15%로, 전년 동기의 13.6%보다 증가했다. 취소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 현재 더 많은 구매자들이 일자리 안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계약 체결 직전에 구매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구매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주택 보험이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 또한, 신규 건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취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오늘날 주택 시장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WSJ 기사

CNBC: Mortgage rates jump 20 basis points following Fed cut**미 모기지율, 오히려 0.2% 급등...연준 금리는 인하**

-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발표한 반면, 모기지율은 이와 정반대로 반응했다.
-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0.2% 상승하여 6.33%를 기록했다. 작년 9월에는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6.37%까지 상승한 바 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번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일어났는데, 이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 한편, 최근 금리 하락으로 재융자 신청이 급증했지만 금리 인하 자체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상태이다.

CNBC 기사

[오일]

WSJ: Exxon Profit Falls, Hurt By Weak Pricing
Exxon, 이익 급감...가격 약세로

- Exxon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해 3분기 이익이 감소했다.
- 이들은 75억 5천만 달러의 이익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의 86억 1천만 달러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
- 또한, Exxon은 수익 감소의 원인으로 원유 가격 하락, 화학 제품 마진 하락, 감가상각 비용 증가, 성장 비용, 판매량 감소를 꼽았다.
- 이러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Exxon은 미국 최대 유전 퍼미안 분지(Permian Basin)에서 하루 약 170만 배럴의 생산량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WSJ 기사

WSJ: Chevron Profit Falls on Lower Oil Prices
Chevron도, 이익 감소...유가 하락으로

- Chevron의 3분기 이익은 1년 전의 44억 9천만 달러에서 현재 35억 4천만 달러로 하락했다.
- 이들은 이러한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원유 가격 하락과 에너지 회사 Hess 인수를 꼽았는데, 특히 Hess 인수와 관련해서는 2억 3,5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한편, 매출 및 기타 영업 수익은 전년 대비 489억 3천만 달러에서 481억 7천만 달러로 감소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YahooFinance: Walmart announces new AI shopping tools ahead of holiday season, building on OpenAI partnership
월마트, 연말연시 앞두고 새로운 AI 쇼핑 도구 발표

- 월마트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사 앱에 새로운 AI 기반 쇼핑 도구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이벤트별 쇼핑 품목, 매장 내 할인 정보 제공, 그리고 매장 내 상품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제공된다.
- 이들은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동안 앱을 사용할 경우 평균 25%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고 전했으며 제품 검색과 구매를 간소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전했다.
-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소비자 및 제품 책임자 Mary Hines Droesch는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AI를 사용하여 올해 연말연시 쇼핑을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 한편,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사업부는 올해 회계연도 1분기에 수익을 낸 후 2분기에 26% 성장했다.

YahooFinance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